

시론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비상계엄 선포 후 2주간, 한국에서는 실로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회는 무장한 군인들을 쫓고...

탄핵, 노벨문학상 그리고 사랑과 희망

기록될 시간이 됐다. 시대착오적인 위헌적 쿠데타에 맞선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미친 독재자의 망동으로 국제적으로...

날날 한국사회를 버티게 하는 힘도 저항을 통해 나온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한 순간에 끔찍한 폭력 공화국이 되었을 것이다...

社說

탄핵 정국 민생 살리기·안전 관리에도 허점 없어야

광주와 전남도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민생 안정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전히 국내 상황은 불안하고...

리, 내란 혐의 수사 등도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의거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12·3 비상계엄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사기간 연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의미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조사 기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사 분석 기간을 최장 2년, 보고서 작성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명은 여전히 덧씌워 있는 실정이다. 12·3 비상계엄 모의 정황 문건에서도 똑같이 표기해 공분을 샀다. 유족들은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기고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23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707, 제1공수여단, 수방사 특임대 등 헬기를 탄 무장한 최정예 부대가 국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의 장래가 먼저다

의 과정이 비슷하다고 하는 어느 칼럼의 글도 있다. 외곽으로 떠돌던 인물이 검찰의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이어 검찰총장으로 승진한다. 그 과정에서 보이는 능력 이상의 야망이 그 예다.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이유를 들어 탄핵을 반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에 출마했다. 낙선할 게 당연한 줄 알면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부산(북구강서구)에 출마했다.

그래픽 뉴스

작년 3만4천명 퇴직연금 인출해 집했다...통계 집계 이래 최대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와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탕겨했다는 이는 역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독자투고



이것이 뭐지야. 내 뱃속에서 품고 낳아 온 우주를 안겨준 내 아가. 내 새끼가 낳생 처음으로 들고 흔든 그 팔랑이다. 이걸 들고 좋아서는 까르르 웃고 물고 빨던 내 아가. 그 눈빛과 그 웃음이 겹치는 그 물건이여.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준 그 아가가 처음 갖고 온 팔랑이란 말이여. 오죽하면 이것을 들고 나왔겠나.

엄마와 금남로 (12·14 탄핵가결 현장에서) 아직도 가장결음인 내 새끼가 지금도 한번씩 틀어주면 방긋방긋 웃는단 말이여. 내가 그런 것을 들고 나왔어야. 이 추운 날에. 이것을 들고 518이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그 심정이 어땠겠나. 이렇게 슬프게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은 처음이었어. 80년 오월, 그 엄마들이 생각나서. <박세별·교사>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